‘많이’ 받지 말고 ‘넘치게’ 받자

(신명기 16:1~22)

9.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10.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많이’ 받지 말고 ‘넘치게’ 받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많이’ 받지 말고 ‘넘치게’ 받자

1918년에 함경남도 북청에서 서울 삼청동으로 시집을 오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결혼 1년만인 20살에 과부가 되셔서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60년을 폐품을 모아 팔면서 사셨는데 이 할머니가 81세에 방광암에 걸리셨습니다. 60평생 폐품 팔아 모은 돈이 암 치료 병원비로 자꾸 지출이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남은 돈을 다 긁어모아서 이문동에 있는 외국어대학교에 장학금으로 1억을 전달하셨습니다. 장학금을 전달하시며 총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에 할머니의 얼굴이 나왔는데, 방광암에 걸려 돌아가시게 생기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유, 이제는 병원 갈 돈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사에 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원비로 지출되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도 아니고, 방광암에 걸려 죽게 된 자신에게 지불해야 될 돈이 없는 것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살이 저보다도 더 많이 쪘습니다. 얼마 전에 이천만 원짜리 제트스키 10대와 수억 짜리 러시아 말을 여러 마리 수입하고, 수억 짜리 차를 또 여러 대 사들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키를 타겠다고 4억 달러를 들여서 원산 근처에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돈으로 4,000억쯤 됩니다. 또한 평양과 원산 등에 3~4억을 들여서 물놀이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해설하는 사람의 말로는 책상머리에 앉아 있다가 하고 싶은 게 떠오르면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인민들은 다른 지방

으로 이동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마식령 스키장 같은 곳에는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인민군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놀이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할머니는 이북 함경도 출생이고 김정은은 이북의 강원도에서 출생한 같은 이북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이든 은혜든 많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받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많이 받으려 할수록 복 없는 삶을 살게 되므로 복은 반드시 넘치게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저절로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복과 은혜를 담고 싶어 하는 마음의 주머니가 크다면 김정은처럼 4,000억을 써서 놀이공원을 만들고, 몇 억짜리 차와 말을 들여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담기에도 좁을 만큼 욕구의 마음보가 작은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려는 몸의 건강조차도 그 마음보 바깥에 있는데 이것이 힘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북 전체의 주권자의 입장에 서있어도 한 사람을 위한 할머니와 같은 배려를 할 수가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방향을 나를 위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 것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나를 위하려는 마음을 줄여서 내 몸이 방광암에 걸렸는데도 1억은 넘쳐나는 돈이 되고, 넘쳐난 것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에 선민이 교회로 모이고, 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순절이 바로 이러한 힘이 넘쳐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는 넘치는 힘을 확인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힘이 넘쳐나면서 나타난 역사가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의 결과이고 뒤따라오는 초막절의 가능성입니다. 오순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받을 것인가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게 복을 주신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의 양을 헤아려보아서 내 형편에 맞게 내가 복을 받은 정도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엄밀하

게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헤아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미사'라는 단어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곳에 한번 쓰인 단어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이 순간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단어입니다. 이 '미사'라는 단어는 '흘러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헤아려서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네 힘이 흘러넘친다. 흘러넘치는 가운데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힘이 넘치는 가운데 11절에서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힘이 넘쳐야 합니다. 넘쳐나는 것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넘쳐남이 없으면 헌금을 투자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복을 많이 받기 위해 드리는데 이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이고 밖으로 향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힘이 넘쳐야 하는 것이고, 힘이 넘치면 하나님을 향해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먹어야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나를 주체하기도 힘이 드는데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50대 재벌이 세계 10대 재벌까지는 등수가 올라가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50대 재벌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소용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받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많이 받을 수가 없고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 사이즈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낫을 들어 첫 이삭을 베고 그 후로 49일(7*7)이 지나면 50일째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힘이 흘러넘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해서 넘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대에 1억 장학금을 기부한 할머니가 안 믿는 분이라면 당신을 위하려는 마음보를 굉장히 작게 가지시고, 당신의 몸의 건강을 치료하시려는 마음조차도 마음 바깥에 있어서 넘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나를 위한 마음보를 작게 해서 힘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한 마음보를 작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를 위하여 넓힐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넓이시기를 바라시는데, 그 마음은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채워지지 않고 힘이 생기지 않고 나를 주체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으로 나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넓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마음보를 작게 가지시는 믿지 않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한 마음보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최대한으

로 넓혀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가득차면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여놓을 것들이 없어져서 다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주어진 것이 몸 밖에는 없습니다. 마8: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세상 것을 취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것으로 주어진 것은 달랑 몸 하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밤마다 새벽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지시니 몸 하나 남았는데 몸이 넘쳐흐릅니다. 그 넘쳐흐르는 몸을 십자가에 거시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 몸을 거신 사건이 바로 오늘 칠칠절 앞에 나오는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가 죽던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만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장자가 죽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첫 사랑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첫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말과 행동은 그것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내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서 어린 양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세상 것을 담고 있던 내가 죽었다는 표시로 피를 바른 것입니다.
'무교절'이 상징하고 비유되는 바는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일주일 지내고 일주일째에 안식일을 지냅니다. '안식일'은 균형을 깨고 하나님께 올인 하는 시간이므로 하나님을 담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 유월절은 어린양이 죽어요. 죽었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죽음'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의 것들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들여놓은 것으로 그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여놓은 것들로 살고 있던 내가 죽는 것이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뜻하는바 내 마음 안에 세상 것을 들여놓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마지막 일주일 째 안식일은 그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맞이하는 오순절에는 모든 것이 다 넘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쓸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있거나,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더 보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넘치게 될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없는 복을 더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을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 하나를 넘치는 것으로 만드셨을 때에 거기에 힘이 주어지게 되고 그 힘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많이 받으려고 마음보를 넓힌 상태의 크기를 가지고 나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의 무엇을 담아도 얼마든지 많이 담아도 나에게 만족이 주어질 수가 없이 마음은 텅텅 비게 됩니다.
우주를 무한하게 만드신 이유가 마치 이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만 같습니다. '지구에 있는 것을 다 네 마음속에 넣어도 네 마음은 무한한 우주 같아서 티끌을 집어넣은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무한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 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죽어도 '많이'라는 말이 성립될 만큼 받을 수가 없고 항상 부족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지구가 티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하므로 우주처럼 큽니다. 비유적으로 우주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를 염두에 두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간이 지나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돈을 집어넣으면 우리 인격의 지정의 모든 것을 지배해버립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의 모든 기준이 돈이 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뜻하고 계획하는 것도 돈 때문이 됩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집어넣으면 누룩이 들어와서 밀가루 반죽 전체에 기운이 뻗어가는 것처럼, 내 인격의 지정의 모든 곳에 다 스며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이고 통째로 죽고 부활해서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 따라 승천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갖게 하셔서 만족하게 하시므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다 넘치는 것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 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곡식을 다 거두어 창고에 넣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던 때를 기념합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에 먹고 입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내 손으로 곡식을 거둬서 곳간에 넣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던 마음이 죽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하늘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순절로 넘치게 된 힘으로 성문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대단하다며 숭배하려고 할 때 행 3:12,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넘치는 힘으로 일어난 결과조차도 내 공로로 끌어들

이지 않게 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관건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경제적 환경, 건강상의 환경, 가족관계라든지 인간관계 등의 이 세상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 자체를 넘치게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 없는 그 상태를 넘치는 상태로 만드세요. 내가 지금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 상태를 넘치는 상태로 만드세요. 장학금을 내신 할머니처럼 넘치는 상태로 만들되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라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보를 작게 만드셨는데 보통 사람은 힘듭니다. 그러나 선민은 나를 위한 마음보를 크게 해서 십자가 붙잡고 주님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무교절의 의미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하므로 승천하시는 주님 따라서 무교절 마지막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갖고, 기필코 지금 상태가 넘쳐흐르는 것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도의 끝입니다. '기도의 끝'은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눈 뜨고 일어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이 넘치게 되고 힘이 있을 때까지, 넘치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려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결과를 내 공로로 취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취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으려고 하는 한 절대 '많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복은 넘치게 받는 것이고 넘치게 받으려면 이미 주신 것들이 넘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이 되게 하려면' 십자가 붙잡고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넘치는 것으로 보일 때까지 하는 것이고, '넘치는 것으로 보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힘을 이용하시고 힘에 힘을 보태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의 결과들은 하나도 내 것으로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오순절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고, 오순절의 역사가 지속되려면 유절의 역사 무교절의 역사가 반복돼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지키는 절기가 아닌 십자가를 통해 매 순간마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서 넘치도록 받은 상태에서 힘을 갖고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

쳐 가시는 하나님나라(왕국)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많이 받으려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것임을 알고 이미 주어진 것이 넘치는 부분이 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꽁꽁 매달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